

우유의 힘!!

□글 | 이재성 □그림 | 황성호



성호
그림
2005

얼마전, 엄마가 병원에서 '자궁경부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암'이라는 소리에, 처음엔 눈 앞이 캄캄했는데,
간단한 수술로 '근종'을 제거하면 된다는 말에 한숨을 돌렸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없는 나에게 엄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야. 수술 잘 됐데."
엄마는 아직 몸이 힘드신지 고개만 끄덕이셨다.
"좀 어떠세요."
주치의와 대여섯명의 의사들이 회진을 돌았다.
주치의사는 수술이 잘 됐으니, 빨리 회복 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했다.
회진이 끝나고, 의사들이 나가는데 금테 안경을 쓴 의사 한사람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이내 다른 의사들을 따라갔다.

입원실 문을 나서다가, 젊은 의사 한명과 맞닥뜨렸다.
"아,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산부인과 김정우 의사' 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김정우' 많이 들어 본 이름인데...
"혹시, 양미정씨 아니십니까?"
"맞는데요. 누구시죠?"
"나, 정우야. 김정우 기억 안나? 중학교 때 내가 더 많이 따라다녔는데."
'김정우'
우리반에서 가장 마르고 왜소한 남자아이였다.
키도 크고 살도 찌야 한다면서, 늘 우유를 마시던 아이!
"너, 정말 김정우 맞아? 옛날하고 너무 다른데."
지금의 정우는 살집 있는 몸매에 키도 훗칠하게 크고, 보기좋은 성인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래, 많이 달라졌지.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쨌든 보기 좋다. 외모도 좋아지도 의사 선생님까지 됐으니."
정우는 머쓱한지 싱긋 웃으며, 머리를 만졌다.
정우는 나중에 다시 만나자며, 황급히 가 버렸다.

중학교 때, 왜소한 정우가 늘 따라다니면, 창피하고 싫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정우 소식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몰라보게 변하다니!
키크고 살찌겠다고 우유만 먹었는데, 우유의 힘일까?
게다가 공부도 잘해서 의사도 되고...

나는 중학교 시절 왜소한 정우와 지금의 멋진 정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웬지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